

# Wycliffe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민다나오가 아주 독특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모슬렘과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곳 민다나오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두시간 정도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모슬렘권의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며 전혀 다른 모습의 필리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사람들은 내전, 납치, 폭파등의 뉴스가 매일 들려오는 중에도 모슬렘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특이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슬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라마단 (Ramadan)' 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신부와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하는 등 이들 방식의 절제된 생활을 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이를 통하여 죄가 용서를 받고 형제의 사랑이 회복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이 기간 동안에는 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 휴전을 선포한 상태이고, 모슬렘의 가장 큰 축제일 (Eid ' L Fitr)인 라마단이 끝난 다음날 9월 21일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500만명의 모슬렘이 이곳 민다나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속된 이 곳에서도 이들의 절기인 '라마단' 을 지나면서 복음이 이들에게도 전해 지도록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회 ([www.30-days.net](http://www.30-days.net))'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한 모슬렘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모슬렘의 메시아인 '모함메드'의 출현을 예언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색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등장하고 어딘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도 같은데 모슬렘에게는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이들의 기도 소리가 확성기를 통

하여 온 동네를 깨웁니다. 지구상에 약 15억의 인구가 멸망의 길로 치달고 있는 것을 가까이 목도 하면서, 하루속히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1,12)



마침내 해변 교회의 토요 성경 암송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Program이 진행되는 동안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 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기다려 지고, 모두들 보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 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Program에 참가한 인원이 미취학 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70 여명 이었는데, 그 중에서 10개의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암송 할 수 있는 15명의 학생들이 선정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제 기준으로 보면 합격점을 줄 수 있는데,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외우는 학생들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오랜동안 고민을 하였는데,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생용 영어 성경책을 어렵게 구하여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모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영어 암송 발표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참여를 했지만, 저희와 Program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mailto: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mailto:yeonji_park@wycliffe.org)



드렸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10개의 성경 구절을 그야말로 술술 암송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성경 암송을 마친 한 학생의 간증이 있었고, 암송을 마친 한 자매의 어머니가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서 Projector를 통하여 Slide Show를 했는데, 보는 모든 이들에게 큰 즐거움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예배와 발표를 마친 후에는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잘 준비한 도시락, 음료수, Snack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으로 잘 이루어진 줄 믿고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 119:16)

종교에 비하여 기독교인이 소수이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까닭에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생소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마을에서 15년 동안 한 곳에 교회가 있었지만 믿지 않는 마을을 향하여 주님을 외치기가 어색한 것이 현지의 실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70여명의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에 교회로 불렀지만, 주일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예배와 Program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미 이들의 종교가 오랜 역사를 흘러 이들의 삶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을 드러내고 이들을 부르지 못하는 나약함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어린이에게 전도를 하는 중에 돌팔매 질을 당했다는 현지 청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외국인인 저희가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들이 의아하게 생각 하면서도 멀리하지 않고, 또한 이 지역을 계속 방문하는 중에 마을 사람들이 저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회는 설립이 된 지 벌써 15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때로부터 신앙이 이어와서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새롭게 믿기 시작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타





따라서 이번 마지막 주 예배에 어렵게 참여한 그들에게 현지 사역자들은 쉽게 할 수 없지만 외국인인 저희는 비교적 자유롭게 말 할 수 있어서 저들에게 교회에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돌을 던지는 이는 없었고 모두 웃는 얼굴로 말씀은 잘 들어 주어서 참으로 감사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주부터 4명의 학생이 새롭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정작 문제는 교회가 새로운 교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 예배 자체가 없어서 3시간 정도 진행되는 장년 예배와 성경 공부에 새로운 학생들이 꿈쩍없이 잡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할 지경 이었습니다. 교회 leadership과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들에게는 학생 예배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고, 또한 현재의 변화를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 교회만의 독특한 모습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도 역시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 할만도 합니다.

이제는 저들을 가까이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들을 불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공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사 5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 Prayer Request

-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 흠어져 있는 두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